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 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 지 은*

이 재 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Q진술문을 작성하였고, P샘플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인식은 ① 기본적 요건 지향, ② 물질적 요건 지향, ③ 비물질적 요건 지향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인식이 지역주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수준에서 속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주민들의 인식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삶의 질, 주관적 인식, Q 방법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삶의 질이란 그것을 좌우하는 요인이 객관적 상황인지 또는 주관적인 조건인지를 막론하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의미한다(Lindström, 1992; Stenner et al., 2003: 2161; 이곤수·송건섭, 2011: 489; 고명철, 2013a). 이와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불확정적인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기법이 Q 방법론이다(김순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삶의 질을 유형화하고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승중, 2005; 정준금·김도희, 2008).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 주택, 빈곤,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발

* 제1저자

** 교신저자

생하게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하혜수, 1996: 81; 박광국·김순양, 1998).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이승중, 2005: 164). 지방자치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송건섭, 2007: 36).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방정부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개인이 특정지역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 및 기대수준에 의해 평가되는데(Pavot & Diener, 1993), 이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생활환경 조성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송건섭, 2007: 36). 이에 지방정부는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태용 외, 2000).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의 수사학(rhetoric)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즉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형적으로 조작한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32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조선일보」,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자가 선형적으로 만들어낸 설문문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양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조작된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은 연구자들의 선호에 따라 좌우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바람직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정책문제로 정의할 경우 한계는 보다 분명해진다.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단계에서 인식주체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 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constructed) 특징이 있다(Rochefort & Cobb, 1994: 6). 삶의 질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내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제3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정정길 외, 2010: 349),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은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파악한 후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삶의 질의 구성요인을 선정하였고, 그 요인을 바탕으로 35개의 Q 진술문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삶의 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40명의 P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삶의 질'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Walker & Mollenkopf, 2007: 3; Efklides & Moraitou, 2013: 1). 이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Efklides & Moraitou, 2013; 김홍규·유현정, 2004; 송건섭, 2007; 고명철, 2013a).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살기 좋다는 감정으로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에 근거하고 있다(Myers, 1987). 국내 학자들이 정의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 물리적 조건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김도엽(2001)은 삶의 질을 “지역주민들이 보다 만족하는 안락한 삶의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라 하였고, 이태종 외(2000)는 “특정한 지역이 제공해 주는 환경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삶의 질을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성호(1994)는 주민들의 내재적 본성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상태라고 보았고, 이곤수·송건섭(2011)은 “특정사회의 생활과정에서 체험하는 복지, 행복감, 만족감”이라 하였다. 이들을 종합한 견해인 고명철(2013a)은 삶의 질을 “주관성, 총체적 특성, 정부활동의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축약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Allardt(1993)는 ‘소유(having)-사랑(loving)-존재(being)’ 모형을 소개하였는데, 소유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 자녀양육, 공기와 물의 질 등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로서 가정과 이웃,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존재는 자신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참여와 평등한 기회보장, 문화나 여가, 자연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고 있다. Veenhoven(2000)은 삶의 기회와 결과, 내면과 외면의 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여 환경의 질, 삶의 효용, 인간의 생활능력, 삶에 대한 가치정향을 그 구성요소로 보았다(한준 외, 2011 재인용). 국내 연구의 경우 한성덕(1998: 456)은 건강·생명·재산과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기본적 요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인 물리적 요건, 고차원적인 욕구와 관련된 정신적 요건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청(2013)은 물질적 영역(소득·소비·자산, 노동, 사회복지, 주거)과 비물질적 영역(건강, 교육·기술,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가족, 시민참여·거버넌스, 안전·범죄, 환경, 주관적 웰빙)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 연구는 크게 그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Evans, 1994; Michalos & Zumbo, 1999; Smith et al., 2004; 하혜수, 1996; 이태종·송건섭, 2001; 김도엽, 2001; 고명철, 2013a)와 삶의 질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Naroll, 1983; Veenhoven, 1994, 1999; 오영석·이곤수, 2006; 최준호, 2001; 안지민·최외출, 2001; 송건섭, 2008)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정책수단들을 연구한 것들도 존재한다(Weitz-Shapiro & Winters, 2008; 김도희, 2002; 정준금·김도희, 2008).

우선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Evans(1994)는 대규모 인구집단에 적용가능한 모형을 연구하면서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Michalos와 Zumbo(1999)는 도시생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주환경과 도시의 지리적 위치를 중시하였다(고명철, 2013b: 213 재인용). Smith와 그의 동료들(2004)은 영국의 3개 빈곤 도시지역의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하혜수(1996)는 43개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33개로 구성된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이태중·송건섭(2001)는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후생복지여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정치참여는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하였다. 김도엽(2001)은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 재정적 변수로 나누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명철(2013a)은 미국 수폴스시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찰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여가 및 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구사회를 연구한 Naroll(1983)은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를 비교하여 개인주의가 발달한 근대사회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 이혼, 아동학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다. Veenhoven(1994)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행복이나 건강 수준이 낮고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다. Veenhoven(1999)은 1990년대 초반 43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삶의 질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개인화된 사회에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오영석·이근수(2006)는 도농복합시인 경주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구도시지역, 신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과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통합 이후 전반적인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도농간 차이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호(2001)는 대구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경산시라는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경산시가 대구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안지민·최외출(2001)은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수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군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과 장래 소득, 교통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송건섭(2008)은 대구광역시와 인근 지역, 그리고 시애틀과 그 인근지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전반적인 삶의 질은 대구보다 시애틀이 높았으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구의 경우 사회자본, 그 인근지역은 지역경제를 중시하였고, 시애틀은 건강, 그 인근지역은 교통과 주거생활을 중시하였다.

삶의 질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Weitz-Shapiro와 Winters(2008)는 라틴아메리카의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참여라는 수단과 삶의 질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치참여와 삶의 질은 긍정적 관계가 있으나, 강제투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김도희(2002)는 울산시를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정을 분석하여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분야에 행정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준금·김도희(2008)는 울산시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과 정책수단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는데, 환경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근수·송

건설(2011)은 평택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방정부의 정책성과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삶의 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삶의 질 인식은 객관적인 생활환경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삶의 질 측정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하는지 또는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객관지표접근법과 주관지표접근법으로 구분된다(Dissart & Deller, 2000; Evans, 1994; 송건섭 외, 2008). 객관지표접근법은 개인, 집단, 사회적 환경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주로 경제생활, 평균수명, 범 죄율, 교통사고율 등과 같은 사회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한편 주관지표접근법은 개별 주민의 행복과 만족 등은 개인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 정도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이들 두 가지 지표의 상호보완성에 주목하여 두 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다(Lane, 1994; McCrea et al., 2006; 임희섭, 1996; 소진광, 1998).

삶의 질을 객관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Olsen과 Merwin(1976)은 객관적인 삶의 여건을 인구, 경제, 사회구조,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의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50개의 측정변수로 평가하였다. Schneider(1975)는 소득·부·고용, 환경, 건강, 교육, 참여, 사회 질서의 6가지 항목 13개의 객관적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Myers(1987)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직업, 물가, 교통, 식수관리를 기준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Slottije와 그의 동료들(1991)은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공공서비스 인프라, 보건, 고용 및 소득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26개국을 비교하였다. Falkenberg(1998)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비교연구하면서 삶의 질을 사회적 형평, 효율성, 자유로 구성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Royuela와 그의 동료들(2003)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314개 지역의 삶의 질을 분석하였는데, 지표는 개인측면(부, 노동인구 비율, 교육수준, 자동차 소유비율, 평균연령 등), 사회측면(주택 소유, 지역 이주, 성불평등, 통근, 사회 서비스, 교통 정체 등), 지역환경측면(주택 특성, 교육시설, 의료시설, 기후 및 자연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김도엽(2001)은 삶의 질을 지역경제(인구증가율, 제조업체 수 등), 주거환경(하수도·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주차면수, 금융기관 수 등), 교육문화(도시공원면적, 문화재 수, 학교 수, 학생 수 등), 사회복지(병상 수, 의사 수, 약국 수, 복지예산비율 등)의 네 항목의 34개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였다.

한편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World Health Organization(1997)은 삶의 질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24개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Marans와 그의 동료들(1980)은 삶의 질을 지역사회 및 이웃의 질, 사생활, 도로, 안전, 소방, 쓰레기처리, 공원과 여가, 대중교통, 교육, 건강, 생활편의, 공해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Santo와 그의 동료들(2007)은 삶의 질을 환경, 도시화, 이동성, 문화, 스포츠 및 여가, 교육, 건강, 사회복지, 무역, 주거생활, 도시안전, 빈곤과 소외, 사회활동 등 13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태종 외(2000)는 삶의 질을 주택수급, 토지활용, 주거생활, 의료보건, 교육, 취

업, 경제생활, 인간관계, 정치참여, 안전관리·재난구호, 자연환경, 교통, 후생복지, 여가·문화향유, 전반적 생활의 15 분야의 지표로 분류해 측정하였다. 김태용 외(2000)는 삶의 질을 의·식·주, 가치관, 사회관계, 교육, 안전·보건·복지, 경제·노동, 여가, 행정과 참여, 사회제반시설, 환경의 10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33개 하위요소로 측정하였다. 한편 최준호(2001)는 삶의 질을 건강한 생활, 공공안전, 편리한 생활, 자연환경, 교육 및 복지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송건섭(2007)은 삶의 질을 건강한 생활여건(가족, 소득·소비, 직장, 보건), 공공안전 생활여건(치안관리, 재난구호), 편리한 생활여건(교통, 정보통신, 주거생활), 자연환경여건(환경관리, 자연보호), 교육여건(교육),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문화, 여가), 경제생활여건(지방세금 및 물가, 인구, 지역경제), 기타생활여건(인간관계, 시설이용 편리성, 지방자치, 사회참여)으로 구성하였다. 이승철(2011)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경제, 사회, 기타의 항목과 19개의 하위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임정민 외(2012)는 삶의 질 측정지표를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고명철(2013b)은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거주지로서의 지역 및 거주지역 이웃들에 대한 평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김현민 외(2013)는 개인적 안녕(기초생활, 사회적 지원, 경제), 환경적 안녕(자연환경, 공공시설), 삶의 장(공동체 의식, 역사, 문화, 국제화), 거버넌스(정치·제도)로 분류하여 10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의 삶의 질 측정 지표

연구자	연구지역	연구방법	삶의 질 측정 지표
WHO (1997)	-	주관적 측정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
Schneider (1975)	미국	통합적 측정	소득·부·고용, 환경, 건강, 교육, 참여, 사회질서, 직업만족도, 주거만족도, 소득만족도, 개인능력, 서비스만족도, 시민역량, 정부 불신,
Olsen & Merwin (1976)	미국	객관적 측정	인구, 경제, 사회구조,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Maras et al. (1980)	미국 미시건	주관적 측정	지역사회의 질, 이웃의 질, 프라이버시, 도로와 통행로, 공공안전과 경찰, 소방, 쓰레기처리, 공원과 여가, 대중교통, 교육, 보건, 생활편의, 공해
Myers (1987)	미국 텍사스	객관적 측정	범죄, 직업, 물가, 교통, 식수관리
Falkenberg (1998)	스칸디나비아 국가, 미국	객관적 측정	사회적 형평, 효율성, 자유
Royuela et al. (2003)	스페인 바르셀로나	객관적 측정	개인의 발전 기회, 사회적 형평, 지역사회 조건
Santos et al. (2007)	포르투갈 포르토	주관적 측정	환경, 도시화, 이동성, 문화, 스포츠 및 여가, 교육, 건강, 사회복지, 무역서비스, 주거, 도시안전, 빈곤과 소외, 사회활동
임희섭 (1996)	-	주관적 측정	자아실현영역, 가계생활영역, 가족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지역사회영역

하혜수 (1996)	43개 시정부	객관적 측정	지역경제, 생활편의, 사회복지, 환경
이태종 외 (2000)	경주시	주관적 측정	주택, 토지, 주거생활, 의료보건, 교육, 취업, 경제생활, 인간 관계, 정치참여, 안전관리·재난구호, 자연환경, 교통, 후생 복지, 여가·문화, 전반적 생활
김태용 외 (2000)	원주시	주관적 측정	의식주, 가치관, 사회관계, 교육, 안전·보건·복지, 경제· 노동, 여가, 행정과 참여, 사회복지시설, 환경
최준호 (2001)	대구시, 경산시	주관적 측정	건강한 생활, 공공안전, 편리한 생활, 자연환경, 교육·복지 생활, 여가·문화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김도엽 (2001)	부산시	객관적 측정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오영석· 이곤수 (2006)	경주시	주관적 측정	소득, 취업, 경제, 복지, 교통, 편의, 주거, 행정, 재난, 안전, 보건, 자연, 토지, 교육, 문화, 참여
송건섭 (2007)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주관적 측정	건강한 생활여건, 공공안전 생활여건, 편리한 생활여건, 자 연환경여건, 교육여건,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여 건, 기타생활여건
이승철 (2011)	대구시, 경상북도	주관적 측정	환경, 경제, 사회, 기타
임정빈 (2012)	성남시	주관적 측정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
고명철 (2013b)	미국 델라웨어 주 도버시	주관적 측정	거주 장소로서의 도시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삶의 질, 거주 지로서의 지역, 거주지에서서의 이웃
김현민 외 (2013)	특별시 및 광역시(울산 제외)	주관적 측정	개인적 안녕, 환경적 안녕, 삶의 장, 거버넌스

3.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구자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구성된 지표를 사용해 왔다. 특히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연역적으로 구축한 설문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태도나 행태를 선택하도록 하는 양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사전적으로 조작한 지표들은 연구대상자가 아닌 연구자들의 선호에 따라 서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지표일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인식보다는 연구자의 선호가 크게 반영되어 해석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양적 기법이 주로 활용되어 이해의 목적이 소홀히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삶의 질을 정책문제로 정의내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constructed) 주관성을 가진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경우 양적인 접근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Rochefort & Cobb, 1994: 6).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삶의 질의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도 지역주민들에 따라 주관적인 인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그들 생활의 양적 측면

이 아니라 삶의 질적 조건과 가치의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하재구, 1986; 임근식, 2012: 49).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성 연구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Q 방법론이 주목받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내면세계로부터 그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자극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기존의 선형적으로 조작한 설문지가 아닌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삶의 질 인식 분석을 위한 Q 방법론 설계

1. Q 방법론의 개념과 특성

Q 방법론은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발전시킨 과학적 도구로서, 자기결정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과학적·통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Brown, 1980, 김순은, 2010 재인용). Q 방법론은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 유형 혹은 가치체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유형 혹은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김덕준, 2004).

Q 방법론에서 연구대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자극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자기결정성을 갖고 있다(김홍규, 2003: 13). 자기결정적인 주관성은 기존의 외부적인 관점에 따라 선정된 이론에 맞춰 개발된 척도에 응답하는 질문지 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김홍규, 2003). 외부의 연구자가 제시한 준거 틀이 아닌 연구대상자 자신의 준거 틀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김순은, 2010: 6). 이와 같은 자기결정적 주관성에 대한 접근은 Q 방법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김홍규, 2003: 13). Q 방법론은 인간의 다양한 의견, 관점, 견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김순은, 2010),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치·태도가 무엇이고, 다른 집단과 어떻게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경향을 보면, 심리학에서부터 임상병리학, 간호학, 보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rown, 1997; 김순은, 2010: 22). 최근에는 여론과 대중의 인식이나 태도, 사회화,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등 자아관련적인 사회문제나 정치문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김홍규, 2003: 13-14). 특히 행태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후기 행태주의에서는 정책과정을 현상학적, 해석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후기 행태주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의견들이 대립하는 행정과 정책연구에서도 Q 방법론은 주목을 받고 있다(김순은, 2007: 29-30).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업무, 조직의 기능과 문화, 리더십 등 공공관리나 인사관리, 예산과 계획, 행정개혁이나 정책결정의 영향, 정책문제에 대한 특정대안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Brown et al., 2008). 국

내 연구로는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한 김순은(1997)의 연구, 정보화사업의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선정하기 위한 김순은·윤상오(2001)의 연구,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한 박광국 외(2001)의 연구,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서적 대응을 유형화한 한승주(2010)의 연구,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인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한 김순은(2012)의 연구 등이 있다.

한편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 만족감에 대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의료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Stenner와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 미국 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한 신혜숙(1997)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특수집단에 대한 삶의 질을 연구한 것일 뿐이다. 선행연구들 중 일반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1) Q 표본(Q-sample)의 선정

〈표 2〉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지표

구성요소	세부구성요소	조작적 정의
경제적 삶	지역경제여건	취업기회, 실직위험, 소득수준, 빈부격차, 생활물가수준만족
	사회복지여건	병의원 서비스, 약국서비스, 지역장애인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수준
안전한 삶	안전 환경	재해예방, 재난구호, 치안상태
편리한 삶	주거환경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주거환경의 쾌적성, 주거의 일상생활 편리성
	교통 환경	보행환경의 편의안전성, 자가용교통 이용환경,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정보환경	지역정보 전달 신속, 지역정보 접근용이, 인터넷의 편리한 이용환경
	행정여건	공무원의 친절도, 불편사항 처리 및 사후관리, 민원안내 및 접근용이성, 행정 시설이용의 편의·쾌적성, 시민의견 반영, 공공기관 신뢰
	기초생활여건	시장접근도, 공원접근도
쾌적한 삶	쾌적한 환경	악취예방, 공해예방, 수질오염, 소음예방, 쓰레기수거, 상하수도 시설
사회문화적 삶	문화체육 생활여건	박물관·전시관, 음악회·연극공연장, 실내외 체육 이용시설, 여가공원 이용 시설, 공공도서관 이용시설 수준
	교육환경	대학 교육환경,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평생교육환경, 학교주변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
	사회적 여건	지역사회공동체 참여, 이웃 간의 유대 관계
	지역 애착심	지역 애착심·자부심, 지역 역사·지리 지식, 자원봉사활동, 어려운 주변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역사회 여건

주: 최준호(2001), 송건섭(2007), 임정빈(2012), 임근식(2012)의 지표와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함.

본 연구는 Q 표본으로서 Q 진술문(Q Statement)을 사용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설명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비구조화된 방식과 특정 이론을 검증할 때 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방식의 2가지 방법이 있다(김순은, 2010).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지역주민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Q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은 주민들의 지역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중심이므로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으로 접근한 선행연구와 민원인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중심으로 <표 2>와 같은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Q 표본은 앞에서 구성한 삶의 질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적 삶(지역경제, 사회복지), 안전한 삶(안전 환경), 편리한 삶(주거환경, 교통 환경, 행정·정보환경), 쾌적한 삶(쾌적한 환경), 사회문화적 삶(문화체육생활, 교육환경, 사회적 여건) 항목을 중심으로 총 35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진술문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Q 진술문

구성 요소	세부 요소	Q 진술문
경제적 삶	지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형편이 개선되는 것이 좋다. • 어려운 경우에 기초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역의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직의 위험이 적어야 한다. • 이웃 주민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치료나 건강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 여성·노인·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높아야 한다.
안전한 삶	안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 •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 •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야 한다.
편리한 삶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주거공간과 쾌적한 주거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지역 내 공공시설 관리가 잘 되어있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장·공원·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들이 가까워야 한다.
	교통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 •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가 잘 관리되어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정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 민원제기를 하면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고, 행정절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쾌적한 삶	쾌적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는 지역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이 있어야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다. • 주거지역 주변에 소음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 문화적 삶	문화 체육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곳을 정할 때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편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내가 사는 지역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문화 및 예술 공연이 자주 개최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이 좋다. •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있어 언제든지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P 표본(P-sample)의 표집

P 표본의 수에 따라서 Q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 표본이 1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라고 하고, 대개 30~50명 정도의 다수 P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를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라 한다(김순은, 1999). Q 방법론은 개인간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 의미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t)를 분석하는 것으로 소표본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김홍규, 1992: 7). 따라서 적은 수의 P 표본으로도 요인을 만들고 그 요인들 간에 특성을 비교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김홍규, 2007: 6).

Stephenson(1953)은 P 표본을 선정할 경우에는 톰슨의 도식(Thompson Schemata)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홍규, 1992 재인용). Thompson(1966)은 다음의 5개 집단에 의해 의견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1)관련주제에 특별한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special interest), (2)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judge, dispassionate interest), (3)권위 있는 전문가(authorities, expert), (4)관심이 있는 일반인(class interest), (5)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uninformed, uninterested) 등이다(김홍규, 1992 재인용).¹⁾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는 Q 요인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사항일 뿐, 양적 접근에서와 같이 배경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김순은, 2010: 17).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P 표본은 지역주민들의 삶

1) 김홍규(2007: 7)는 영화등급제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하는 경우 톰슨 도식을 적용하면, (1)특별한 흥미가 있는 사람에는 영화제작자 및 배급자, 극장주 등, (2)공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에는 중·고교 교사 등, (3)권위 있는 전문가에는 사회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등, (4)관심 있는 사람에는 학부모, 청소년 등, (5)정보가 없는 무관심층에는 위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이 속한다고 한다.

의 질에 관심이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서울지역 거주 일반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삶의 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민원인(4명), 독립적인 의견을 가진 공무원(군경 포함)과 공공기관 종사자(14명), 권위 있는 전문가인 연구원 및 박사(3명), 관심 있는 일반시민인 회사원과 학생(12명),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부와 노인(7명) 등을 P 표본에 포함시켰다.

3) Q 분류(Sort) 및 분포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35개의 카드를 P 표본인 일반 주민들에게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된 진술문을 읽고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4에서 4까지의 순서로 가장 반대(-4) 2개, 그 다음으로 반대(-3) 3개, 가장 동의(+4) 2개, 그 다음으로 동의(+3) 3개 등으로 분류하도록 해 정규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1〉 Q분류 실시를 위한 조사표

- 4	- 3	- 2	- 1	0	1	2	3	4

IV. Q 요인의 분석 및 해석

1. 자료의 분석

40명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획득한 Q-분류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PQMethod 2.3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관관계(Correlations Between Factor Scores)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김순은, 2007: 100). 이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요인 간 상관관계는 요인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요인 수가 과다하게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관관계는 아래 <표 4>와 같이 가장 높은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계수가 0.4865이며 나머지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4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아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간에 유사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1.0000		
요인 2	0.4865	1.0000	
요인 3	0.3737	0.2889	1.0000

2) 요인분석표(Factor Matrix with an X Indicating a Defining Sort)

<표 5>에서와 같이 첫 번째 요인의 경우 40명의 P 표본 중 14명이 이에 속하고 있고, 두 번째 요인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견해를 나타내는 요인에는 총 4명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유형은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첫 번째 유형은 17%, 두 번째 유형은 21%, 세 번째 유형은 10%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요인분석표

응답자	요인	1	2	3	배경변수		
					성별	연령	직업
1		0.4411	0.4875*	0.1856	여성	30대	박사
2		0.4715	0.5115*	0.0361	남성	30대	공무원
3		0.0758	0.5927*	-0.0205	여성	20대	공무원
4		-0.0399	0.3916*	0.3720	남성	40대	공무원
5		0.7218*	-0.0576	0.0271	여성	30대	공무원
6		0.2664	0.4479	0.6395*	남성	40대	공무원
7		0.3271	0.6045*	-0.3422	여성	30대	공무원
8		0.3601	0.5105*	0.2308	여성	30대	공무원
9		0.5880*	0.4313	-0.1070	여성	40대	공무원
10		0.7143*	0.2513	0.1147	남성	40대	공무원
11		0.4884*	0.0409	-0.0834	남성	30대	공무원
12		0.1729	0.5583*	0.4207	남성	40대	공무원
13		0.5723*	0.3519	0.2019	여성	30대	공무원

2) Q 방법론에서의 유형간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 완전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R 방법론의 요인분석과는 달리 상관관계의 크기에 따른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한다(이은남 외, 2006: 1245).

14	0.2459	0.3627*	0.2313	남성	30대	공무원
15	0.6827*	0.0315	0.2979	남성	40대	공무원
16	0.4433*	0.1494	0.2727	여성	60대	은퇴자
17	0.4585*	0.2334	0.3651	남성	70대	은퇴자
18	0.4088	0.6684*	0.1215	남성	40대	회사원
19	0.4313*	0.4199	0.0658	남성	30대	회사원
20	0.1042	0.7152*	0.0501	여성	30대	회사원
21	0.7917*	0.0351	0.1598	여성	50대	주부
22	0.7843*	0.1062	-0.0432	여성	40대	회사원
23	0.5514*	0.0128	0.4979	남성	40대	박사
24	0.5296*	0.2568	0.2193	여성	40대	연구원
25	0.3505	-0.0045	0.6653*	여성	60대	주부
26	-0.1608	0.5536*	-0.3329	남성	50대	회사원
27	0.1790	0.0514	0.5657*	남성	60대	은퇴자
28	-0.2162	-0.0730	0.7052*	여성	60대	주부
29	0.4894*	0.0717	0.4104	남성	20대	민원인
30	-0.1844	0.5155*	0.1249	여성	20대	학생
31	0.1633	0.6227*	0.4483	남성	20대	학생
32	0.0993	0.4288	0.4372	남성	30대	민원인
33	0.0903	0.7213*	0.2725	남성	70대	은퇴자
34	0.4413	0.5741*	0.0353	여성	20대	학생
35	0.2115	0.2923	0.1216	여성	20대	학생
36	0.3648	0.6769*	-0.1820	여성	20대	학생
37	-0.1034	0.7296*	0.4004	여성	30대	민원인
38	0.3443	0.4648	0.4034	남성	20대	민원인
39	0.1030	0.5607*	0.1520	여성	20대	학생
40	0.2973	0.8108*	-0.1098	여성	20대	학생
설명력	17%	21%	10%			

주: $p < 0.05$ 의 유의수준

2. 자료의 해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구분한 연구를 참조하여 기본적 요건 지향, 물질적 요건 지향, 비물질적 요건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한성덕(1998: 456)은 삶의 질을 기본적 요건, 물리적 요건, 정신적 요건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통계청(2013)은 국민의 삶의 질 영역을 물질적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의 구성요소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기본적 요건, 물질적 요건, 비물질적 요건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해석을 위해 진술문 중 응답자가 양극단에 배열한 진술문(요인가 -4, -3, 3, 4)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6〉 Q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	요인	요인
		1	2	3
1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형편이 개선되는 것이 좋다.	4	2	1
2	질병치료나 건강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0	2	4
3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	0	0	-3
4	내가 사는 지역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0	-3	1
5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4	-4	-1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3	-1	-4
7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3	-1
8	어려운 경우에 기초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2	3	2
9	충분한 주거공간과 쾌적한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0	0
10	민원제기를 하면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고, 행정절차과정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	0	-2
11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이 좋다.	-2	-2	3
1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	1
13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높아야 한다.	1	1	4
14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3	-4
15	살기 좋은 곳을 정할 때 여가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편리한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1	-2	2
16	공공도서관이 충분히 있어 언제든지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2	-1	-2
17	지역 내 공공시설 관리가 잘 되어있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	0	0
18	지역의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1	1	-3
19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1	-1	-1
20	주거지역 주변에 소음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2	-1	1
21	시장·공원·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들이 가까워야 한다.	1	1	0
22	여성·노인·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0	1	3
23	문화 및 예술 공연이 자주 개최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0	-4	-2
2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직의 위험이 적어야 한다.	-2	-2	-3
25	지역주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4	0	0
26	인도가 잘 관리되어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1	-2	-1
27	이웃주민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3	-3	-2
28	내가 사는 지역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이 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0	2
29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	2	-1
30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다.	2	-1	3
31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야 한다.	2	4	1
32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3	2	0
33	범죄 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	4	4	2
34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	0	0
35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	0	3	0

1) 요인 1: 기본적 요건 지향

요인 1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적 요건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1을 구성하는 응답자들은 생명·재산 등 삶의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진술문 7, 8, 31, 33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 요건 지향’의 응답자들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관련해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진술문 31에 +4를 부여하였고,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35에 +3을 부여해 이들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고, 범죄 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하며, 어려울 때 기초생활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진술문 7, 진술문 33, 진술문 8).

한편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명·재산 등에 대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기본적 욕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문화적 생활이나 편리한 생활, 경제적 생활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사회·문화적 삶의 측면에서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5와 “문화 및 예술 공연이 자주 개최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23에 -4를 부여하였다. 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진술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술문 4). 따라서 ‘기본적 요건 지향’의 응답자들은 사회·문화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리한 생활의 경우 특히 교통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과 관련해 이들은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3을 부여하여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진술문 14). 경제적 삶의 측면에서도 이웃과의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진술문 27), 경제적 삶은 기본적 욕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진술문은 개인의 경제적 측면과 직접 관련되는 요인이기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표 7〉 요인 1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31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야 한다.	4
33	범죄 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	4
8	어려운 경우에 기초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3
7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35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	3
4	내가 사는 지역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3
14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3
27	이웃주민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3
5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4
23	문화 및 예술 공연이 자주 개최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기본적 요건 중 특히 안전한 생활환경과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특징을 보여 육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측면을 모두 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적 위험과 범죄, 폭력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임근식, 2012: 51), 이 관점은 자연적 위험(진술문 31, 진술문 35)과 사회적 위험(진술문 33)에 대한 안전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요인 2: 물질적 요건 지향

두 번째 인식 유형인 요인 2는 개인의 안녕과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 삶의 만족을 주는 물리적·제도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물질적 요건 지향’이라 지칭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진술문 1, 5, 7, 9, 29, 3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물질적 요건 지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진술문 1, 7, 29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있어야 하며(진술문 7), 편리한 삶을 위해 충분한 주거공간과 쾌적한 주거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진술문 9),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진술문 29)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3을 부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좋고(진술문 1), 안전한 삶을 위해 범죄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진술문 33)라는 의견에 +4를 부여하여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표 8〉 요인 2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1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형편이 개선되는 것이 좋다.	4
33	범죄 발생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	4
7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9	충분한 주거공간과 쾌적한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29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3
27	이웃주민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3
32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3
5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4
25	지역주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4

한편 ‘물질적 요건 지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혹은 공동체적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여건 측면에서 “지역주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체

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25와 “지역축체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5에 -4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진술문 32에도 -3을 부여하고 있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견해에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물질적 요건 지향’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정보 및 지역경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진술문 6)과 이웃과의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는 것(진술문 27)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질적 요건 지향’의 사람들은 소득향상, 좋은 치안상태, 충분한 주거시설 등과 같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물리적·제도적인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요인 3: 비물질적 요건 지향

세 번째 관점인 요인 3은 ‘비물질적 요건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관점은 삶의 질 요인 중 쾌적한 생활환경, 평생교육 여건, 건강 및 의료 환경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물질적인 요인보다는 비물질적인 요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술문 2, 11, 22, 30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쾌적한 삶의 측면의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진술문 30에 +3을 부여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환경 측면에서는 거주 지역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진술문 11).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학교교육이 아닌 개인의 인격적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 및 의료 환경 측면에서는 질병치료나 건강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진술문 2),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높아야 한다(진술문 13)는 진술문에 +4를 부여하여 매우 강하게 동의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진술문 22)고 생각하여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유형은 삶의 질에서 비물질적인 요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물질적 요건 지향’은 교통 환경이나 지역경제여건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진술문 6, 14, 18, 24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편리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6과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14에 각각 -4를 부여하였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라는 진술문 3에 -3을 부여했다. 그리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구직의 용이성 및 실직의 위험, 지역물가 및 지역경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술문 24, 진술문 18).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악취, 수질오염, 공해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에 의료기관이 충분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비물질적 요건 지향’은 생활의 쾌적함과 관련이 있는 공원 및 정돈된 도시경관 등의 환경과 교육, 건강 등의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요인 3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2	질병치료나 건강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4
13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높아야 한다.	4
11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것이 좋다.	3
22	여성·노인·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3
30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다.	3
3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	-3
18	지역의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3
2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직의 위험이 적어야 한다.	-3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4
14	충분히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4

4) 삶의 질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비교

본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인식은 ‘기본적 요건 지향’, ‘물질적 요건 지향’, ‘비물질적 요건 지향’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었다. ‘기본적 요건 지향’은 생명·재산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이 보장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물질적 요건 지향’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과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유형은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안녕과 만족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물질적 요건 지향’은 물질적인 요인보다는 쾌적한 생활환경, 평생교육 여건, 건강 등과 같이 비물질적인 요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양극단에 배열한 진술문(요인가 -4, -3, 3, 4)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세 요인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진술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진술문을 중심으로 하여 각 관점과 다른 관점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 요건 지향’ 관점과 ‘물질적 요건 지향’의 경우 두 관점 모두 개인의 삶에 직접 관련되어있는 요인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타인 및 지역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이를 진술문을 통해 살펴보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이 필요하며(진술문 7), 범죄발생의 걱정이 없도록 치안상태가 좋아야 한다고(진술문 33)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문 5와 “이웃주민과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진술문 27에 각각 -4와 -3을 부여하여 두 관점 모두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물질적 요건 지향’과 ‘비물질적 요건 지향’을 비교해보면, 행정정보환경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의 진술문 6에 각각 -3과 -4를 부여하여 두 유형 모두 지역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유형 모두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안녕과 만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석되며, 유형의 차이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중 어느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볼 수 있다.

셋째, ‘기본적 요건 지향’과 ‘비물질적 요건 지향’을 비교해 보면 두 유형은 교통 환경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충분한 주차공간과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의 진술문 14에 각각 -3과 -4를 부여하여 두 유형 모두 주차관련 요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은 ‘기본적 요건 지향’의 사람들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 아니며, ‘비물질적 요건 지향’의 관점에서 물리적·물질적 요건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삶의 질 인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기본적 요건 지향’, ‘물질적 요건 지향’, ‘비물질적 요건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 ‘기본적 요건 지향’은 생명·재산 등의 요인에 대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환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해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재·홍수와 같은 재해예방에 힘써야 하고,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위험 측면에서는 치안·방범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질적 요건 지향’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마련, 쾌적한 주거환경·안전한 지역 환경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물질적 요건 지향’의 경우 이 유형의 응답자는 쾌적한 환경 및 교육환경, 복지환경을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를 청결히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평생교육 시설, 의료시설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제반의 시설과 환경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에 대해 지역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형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 혹은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삶의 질 측정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연구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기법 및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윤은기, 2011, 2012)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선형적으로 조작한 정의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석된 연구는 삶의 질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와의 격차를 의미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내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질의 요인은 무엇이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를 Q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분석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3종 오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인식유형이 다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은 집행단계에서 심각한 불응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론조사, 시민패널 등의 여러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공론의 장에서 삶의 질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인식유형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는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의 이념을 조화로운 추구를 보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승중, 2005: 171).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고루 참여시켜 어느 유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모든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를 숙의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면 그 결과 지역주민들 간의 삶의 질을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삶의 질의 하위유형에 대한 충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개별 지자체의 주민들의 인식유형을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위유형별로 접근하여 삶의 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주민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전국적인 일반화

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Q 방법론의 특성상 40명의 P 표본으로 주관적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으나,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획일적인 적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한계에 유의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명철. (2013a).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43-270.
- _____. (2013b). 삶의 질과 공공관리적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미국 도버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205-232.
-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김덕준. (2004). Q-방법론을 활용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인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2): 143-165.
- 김도엽. (2001). 지방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2): 81-96.
- 김도희. (2002). 삶의 질 중심의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조직의 변천. 「한국정책학회보」, 11(2): 1-26.
- 김순은. (1997).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분석: Q 방법론의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7(1): 5-26.
- _____. (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 _____.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금정.
- _____.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_____. (2012). 지방정부 경쟁력의 구성요인에 관한 인식분석. 「행정논총」, 50(3): 67-98.
- 김순은·윤상오. (2001).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연구」, 5(4): 207-226.
- 김태용·오승석·진기남·안희정.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 김현민·조성남·진기남. (2013). 살고 싶은 도시 요건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도시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191-208.
- 김흥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_____. (2003). Q 방법론의 정치학적 적실성과 적용 가능성. 「주관성 연구」, 8: 5-19.
- _____. (2007).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 연구」, 15: 5-19.
- 김흥규·유현정. (2004). 한국 성인의 삶의 질 척도 개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7(3): 65-101.

- 박광국·김순양. (199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개혁과제. 「사회과학연구」,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2): 25-51.
- 박광국·주효진·김옥일. (2001).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분석: Q 방법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35(1): 109-126.
- 박성호. (1994). 「21세기와 삶의 질」. 서울: 정보환경연구원.
- 성도경·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1): 65-84.
-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_____. (2008). 광역생활권의 삶의 질(QOL) 영향요인: 대구와 시애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3): 975-999.
- _____. (201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방안. 「한국행정논집」, 23(3): 853-877.
- 송건섭·김영오·권용현. (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9.
- 신혜숙. (1997). 미국 이민 한국노인의 삶의 질. 「주관성 연구」, 2: 5-33.
- 안지민·최외출. (2001). 자치단체의 삶의 질 비교평가. 「사회과학연구」, 21(1): 21-47.
- 오영석·이곤수. (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59-180.
- 윤은기. (2011). 삶의 질 측정지표와 델파이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_____. (201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한 삶의 질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395-419.
- 이곤수·송건섭. (2011).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지방정부 신뢰: 평택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2): 487-509.
- 이승중. (2005).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제2판)」. 서울: 박영사.
- 이승철. (2011). 도시유형별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5(2): 97-119.
- 이은남 외. (2006).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유형: Q-방법론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6(7): 1242-1252.
- 이태중·송건섭. (2001). 자치시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결정요인: 경주시를 중심으로. 「경주연구」, 10: 73-92.
- 이태중·송건섭·박철민.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75-92.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임정빈·최재영·홍근석. (2012).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17-242.
- 임희섭. (1996). "삶의 질" 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정정길 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준금·김도희. (2008). 지방정부 ‘삶의 질 행정’의 실태와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2): 153-178.
- 「조선일보」. (2012). 한국인 삶의 질, OECD 꼴찌(32개국 중 31위) “신뢰 부족한 나라”. 2.27: 14.
- 최준호. (2001). 광역자치단체와 위성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4): 133-150.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하재구.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2081-2095.
- 한성덕. (1998). 삶의 질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지표의 ‘삶의 질’ 지표화 방법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3): 425-491.
- 한승주. (2010).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정서적 대응: Q방법론의 적용. 「행정논총」, 48(3): 25-57.
- 한준 외.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연구과제 보고서.
- Allardt, E. (1993). “Having, Loving, Being: An Alternative to the Swedish Model of Welfare Research.” In Nussbaum, M. and A. Sen (Ed.). *The Quality of Life*, 88-94. Oxford: Clarendon Press.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Q Methodology in Psych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symposium on “A Quest for a Science of Subjectivity: The Lifework of William Stephenson,” University of London; and conference on “A Celebration of the Life and Work of William Stephenson (1902-1989),” University of Durham, England. (QArchive).
- Brown, S. R., Durning, D. W., & Selden, S. C. (2008). Q Methodology. In Yang, K., & Miller, G. J.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721-764. Boca Raton: CRC Press.
- Dissart, J. C., & Deller, S. C. (2000). Quality of Life in the Planning Literature.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5(1): 135-161.
- Efklides, A., & Moraitou, D. (2013). *A Positive Psychology Perspective on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ume 51. Dordrecht: Springer.
- Evans, D. R. (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47-88. Springer.
- Falkenberg, A. W. (1998). Quality of Life: Efficiency, Equity and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and Scandinavi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7(1): 1-27.
-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2): 219-252.

- Lindström, B. (1992). Quality of Life: A Model for Evaluating Health for All. Conceptual Consider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Soz. Praventivmed.*, 37(6): 301-306.
- Marans, R. W., Dillman, D. A., & Keller, J. (1980).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Rural America: An Analysis of Survey Data from Four Studies*.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
- McCrea, R., Shyy, T. K., & Stimson, R. (2006). What is the Strength of the Link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Urban Quality of Lif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 79-96.
- Michalos, A. C., & Zumbo, B. D. (1999). Public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25-157.
-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Review*, 23(1): 108-125.
- Naroll, R. (1983). *The Moral Order: An Introduction to the Human Situation*. Beverly Hills: Sage.
- Olsen, M. E., & Merwin, D. J. (1976). *Toward a Methodology for Conducting Social Impact Assessments Using Quality of Social Life Indicators*. Battelle Pacific Northwest Labs., Richland, Wash.(USA).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
- Rocheftort, D. A., & Cobb, R. W. (1994).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Lawrence, Kan.: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oyuela, V., Surinach, J., & Reyes, M. (2003).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Small Areas over Different Periods of Tim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51-74.
- Santos, L. D., Martins, I., & Brito, P. (2007). Measur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A Survey to Porto's Resid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2(1): 51-64.
- Schneider, M. (1975). The Quality of Life in Large American Cities: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495-509.
- Slottije, D. J., Scully, G. W., Hirshberg, J. G., & Hayes, K. J.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Boulder: Westview Press.
- Smith, A. E., Sim, J., Scharf, T., & Phillipson, C. (2004).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st Older People in Deprived Neighbourhoods. *Ageing & Society*, 24: 793-814.
- Stenner, P., Cooper, D., & Skevington, S. (2003). Putting the Q into Quality of Life: The Identification of Subjective Construction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Q methodolog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2161-2172.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pson, G. C. (1966).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erelson, B., & Janowitz, M. (Eds.).

-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 Veenhoven, R. (1994). How Satisfying is Rural Life? In Cecora, J. (Ed.). *Changing Values and Attitudes in Family Households, with Rural Peer Groups, Social Networks and Action Spaces*. 41-52. Society for Agricultural Policy and Rural Sociology (FAA), Bonn, Germany.
- _____. (1999). Quality-Of-Life in Individualistic Society: A Comparison of 43 Nations in the Early 1990'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 157-186.
- _____.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Walker, A., & Mollenkopf, H. (2007).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Quality of Life in Old Age: Conceptual Issues. In Mollenkopf, H., & Walker, A. (Eds.),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Issues*, 3-13. New York: Springer.
- Weitz-Shapiro, R., & Winters, M. S. (2008). Politic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638.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

이지은(李知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행정, 시민참여, 지방재정, 문화정책 등이다(jieunlee1212@gmail.com).

이재완(李在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2013)를 받고, 동대학원 BK21플러스사업단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공개, 재정정책, 정책수단, 정책평가, 조사통계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외국인 신뢰가 다문화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2014) 등이 있다(noso791@gmail.com).

Abstract

An Analysis of Citizens' Subjective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Focusing on Q-Methodology

Lee, Ji-Eun

Lee, Jae-Wa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citizens' perceptions on 'quality of life'. In order to examine quality of life as perceived by citizens, Q-methodology was used. A set of Q-statements was constructed with reference to field interviews of citizens and literature review of the precedent study, and it was rated by 40 citizens resid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could be classified in terms of three perspectives: 1. Basic conditions orientation, 2. Material conditions orientation, and 3. Non-material conditions ori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as citizens'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can be divers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ublic sphere where deliberative democracy would be realized and advanced at local government level. By creating and developing public spheres, local governments would be able to take citizens' perceptions and opinions into account better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Life, Subjective Perception, Q-Methodology

